

논 술 고 사 문제지

<인문계 / 커뮤니케이션학부>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30%, 500~600자>

[가] [나] [다]의 차이점을 밝히고, [다]의 입장에서 [라]를 분석하고 평가하라.

[가] 내가 형제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행할 때나, 나의 계약을 수행할 때 나는 법과 관습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규정된 종교적 삶의 믿음과 실천들을 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은 개별 존재에 앞서 존재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체계, 내가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 체계, 내가 상업적 관계에서 활용하는 신용 도구들, 내가 나의 직업에서 행하는 일 등, 이 모두는 나의 개인적 사용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 다른 사회 구성원 각각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밀 뒤르켐, 『사회학적 방법의 법칙』

[나] 사회 명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는 그저 개인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하며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이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이며 사회적 집합체는 전적으로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조직적 행위 양식과 그 결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기본 단위는 단 한 명의 개인이 된다. 사회 명목론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회 계약설은 이에 바탕을 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다] ‘구조’와 ‘행위’는 필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사회, 공동체 또는 집단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명백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에만 구조를 갖는다. 다른 한편, ‘행위’는 우리 모두가 개인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 언어의 예를 들어보자. 언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충분히 구조화되어야 한다.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언어 사용 법칙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주어진 맥락에서 특정한 문법적 규칙을 따르지 않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언어의 구조적 속성은 개인 언어 사용자가 실제로 그 법칙을 따르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언어는 지속적으로 구조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라]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무대 위 영역(front regions)’과 ‘무대 뒤 영역(back region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대 위 영역이란 사람들이 공식적 혹은 양식화된 역할을 수행해 내는 사회적 마주침이나 경우를 일컬으며, ‘무대 위에서의 공연’을 뜻한다. 때론 무대 위 영역에서의 실행을 위해 팀워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정당에 소속된 두 명의 저명한 정치가들이 실제로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단합된 우정을 가장하기도 한다. …중략… 무대 뒤 영역은 사람들이 보다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해 준비를 갖추고 대비 태세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대 뒤 영역은 영화 촬영 시 막간에 하는 행위와 유사한 것이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 있는 경우에 긴장을 풀고 무대 전면에 있을 때 억제하던 감정 및 행동 양식에 여유를 갖게 된다. 무대 뒤 영역에서는 불경스러운 언행, 공개적인 성적 표현, 옷을 아무렇게나 입는 것, 단정치 못하게 앉은 자세나 선 자세, 사투리 등 비표준어의 사용, 중얼거림, 소리 지름, 치고받으며 농담하고 우스꽝스럽게 장난치기, 사소한 듯하지만 어떤 의도를 깔고 다른 사람에 대해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나 흥얼거림, 휘파람불기, 씹는 소리, 음식 값아먹기, 트림, 방귀 등의 사소한 방종이 허용된다.

—어빙 고프만, 『일상에서의 자기 표현』

<문제 2: 30%, 500~600자>

[나] [다] [라]에서 지적된 현행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가]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와 시민, 각각의 노력 방향에 대해 논술하라.

[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1항

[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화국은 ‘시민적 덕성(civic virtue)’,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민적 덕성은 공화정부의 토대—또는 몽테스키외의 표현을 쓰자면 공화정부의 ‘정신(esprit)’—이다. 하지만 요즘의 정치사상가들 사이에서는 공화주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적 덕성이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거나 위험스러운 것, 또는 실현불가능하면서 동시에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 즉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개별집단의 이해에 묶여 있어 공공선을 추구할 동기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현불가능’하고, 오늘날의 다문화적 사회에서 시민들의 시민적 덕성이 강해지는 경우, 시민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덜 관대해지고 자신들의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열광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끝으로, 그들은 이렇게 시민적 덕성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리치오 비롤리, 『공화주의』

[다]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발달하기 시작한 오늘날 민주주의가 다른 사상과 결합되어 발전해가면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산업화가 계속되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야경국가론이 태동되었다. 여기에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사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공공 영역은 축소되고 시민들은 파편화되었다. 개인주의에 빠진 시민들은 광장에서 물러나 개인들의 은밀한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자유를 탐닉하느라 정치를 잊어버렸다. 정치는 일반 시민이 아닌 일부 잘난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실제로 체험하고 해보는 정치가 아니라 단지 구경만 하는 것으로 변해 버렸다.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을 자유 민주주의라고 할 때,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과 사적 영역의 강조는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위 ‘소극적 자유’ 개념을 발전시켰다.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개념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침해 불가능한 보편적 권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소극적 자유 개념이 확대되면서 타인이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라는 관념이 확대되었고 국가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은 시민과 사회를 억압하고 간섭하는 ‘불편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김경희, 『공화주의』

[라] 먹고 살기 위해 자기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 공화주의는 이렇게 인간이 선하다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한다. 좋은 나라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좋은 나라는 다른 아닌 공동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구도 서로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나라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은 실제로 개인들이 사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공동체가 간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중국에는 그 자유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공화주의는 자유를 단순히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자의적 지배의 부재’로 본다. 즉 자의적 지배를 막기 위한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시민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그것은 소아병적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대의가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한다는 자기 확신을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그것은 그러한 대의를 침해하는 세력에 맞설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세력이 등장할 수 없도록 시민군을 조직하고 불균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문제 3: 40%, 1,000~1,200자>

[가] [나]의 문제와 그 원인을 정리하고,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다] [라]의 한계를 설명한 다음, 그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마]에서 추출한 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라.

[가] 오늘 당신의 곡식이 익고, 내일은 내 곡식이 익는다(고 하자). 오늘은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은 내일 나를 돕는다면 두 사람 모두가 이익을 챙길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 대한 호의가 없으며, 당신도 나에게 대한 호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결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수고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보답을 기대하며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당신과 함께 노동하더라도 나는 실망할 것이며,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에 기대려 했던 것이 얼마나 실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나는 당신이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며, 당신 또한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우리는 둘 다 서로에 대한 신임과 보장이 부족한 까닭에 수확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흄,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나] 어떠한 목동도 다른 목동이 공유지에서 가축에게 풀을 먹인다고 해서 자기 가축을 거두진 않는다. 공유지에 있는 풀이 고갈될 것을 염려해 자기 가축을 거두게 되면 혼자 손해 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다. 모두가 그러한 생각을 해 가축을 공유지에 풀게 되면, 공유지는 황폐해지고 결국 모두가 가축을 먹일 수 없게 된다.

만약 모든 노동자가 동시에 파업에 동참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파업을 지켜보려 한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파업의 과실을 챙기려 무임승차한다. 파업 참여자는 비협조자의 배신을 경험하게 마련이고 다음 파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결국 파업은 좀체 이뤄지지 않고, 모두 파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놓치게 된다.

깨끗한 물, 이웃 간 우애 등과 같은 공공재를 그것의 생산에 대한 공헌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의 유지, 생산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체계를 갖기가 힘들다. 그 결과 아주 적은 양의 공공재만이 생산되고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된다.

—로버트 퍼트넘, 『나 홀로 볼링』

[다]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제 3자 강제라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는 중립적인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약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가 계약의 파기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상대방에게 보상하게 만드는 강제력이 있어야 하며, 그 보상의 정도를 충분히 크게 만들어 계약을 파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능력과 강제력을 갖추는 데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더글라스 노스, 『제도, 제도의 변화와 경제행위』

[라] 토마스 홉스의 말대로 제 3자 강제가 없다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타인과 끊임없이 충돌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 리바이어던(Leviathan)을 수립했다. 인간은 이 리바이어던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정치』

[마] 11월에는 바람이 심하게 분다. 내 집에 있는 나무의 낙엽이 다른 집 마당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내 이웃들이 모여 나에게 나뭇잎을 치우라며 돈을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 이웃 사이에서는 마당의 낙엽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 규범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토요일 오후에 텔레비전 보는 일을 즐기지 못하기도 한다. 사실 이 같은 규범을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새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이 규범을 알려준다. 또 가을이 되면 자주 이 규범을 언급하고 자신의 마당을 열심히 빗질함으로써 이 규범을 강화시킨다. 낙엽을 쓸지 않는 사람은 이웃 간 행사에서 따돌림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동네에서 낙엽을 쓸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게 된다. 비록 규범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내가 낙엽 쓰는 것보다 축구중계 보는 것을 선호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경우 규범을 따르게 된다.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되는 이와 같은 규범이 발생, 유지, 강화되는 이유는 그것이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고 협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혜성이다. 호혜성은 구체적인 것과 포괄적인 것으로 나뉜다. 구체적 호혜성은 등가(等價)의 항목을 교환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무실에서 명절 선물을 교환하는 것, 국회의원들의 ‘주고받기 식 입법’ 등을 들 수 있다. 포괄적 호혜성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가치가 다를 수 있는 지속적인 교환의 관계를 지칭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 베푸는 혜택이 언젠가 보상받으리라는 상호기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정 관계는 거의 언제나 이러한 포괄적 호혜성을 포함한다. 키케로는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친절을 갚는 것보다 더 불가결한 의무는 없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쉽게 잊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은 불신하게 된다.”

포괄적 호혜성의 규범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규범이 통용되는 공동체에서는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집합행동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중세 북부 이탈리아의 공화정에서 시민들이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자구적 결사체(self-help association)의 핵심에는 바로 포괄적 호혜성이 있었다. 또한 19세기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상호부조 모임도 마찬가지였다. 포괄적 호혜성은 개별이익과 연대성 간 갈등을 해소하여 주었다.

—로버트 퍼트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논 술 고 사 문제지

<국제문화계 I / 국제문화계 II / 경제학부>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30%, 500~600자>

제시문 [나]의 차익거래와 [다]의 캐리트레이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캐리트레이드가 한국의 시장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가]의 논거를 활용하여 예측하라.

[가]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모형은 경제학의 가장 주된 분석도구이다.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이동에 근거하여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의 네 가지 규칙은 모든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에 대해서 성립한다.

-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감소한다.
-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벤 버냉키 · 로버트 프랭크, 『경제학 원론』

어떤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를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도록 만든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하며, 그 때의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한다. ...중략... 시장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일부 생산자들은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팔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고자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나] 경제학과 재무관리에서 차익거래(arbitrage)는 두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행위, 즉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장에서의 거래를 조합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익거래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위험이 없이(risk-free)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다. ...중략... 학문적으로 차익거래는 하나의 자산 혹은 같은 현금흐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나, 보다 흔하게는 유사한 상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은행 혹은 중개소와 같이 차익거래를 추구하는 주체를 차익거래자라고 한다. 이러한 용어는 주로 채권, 증권, 파생 상품, 원자재, 외환 등에 적용된다. 시장가격이 차익거래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을 때 차익거래 균형에 있다고 하거나 무차익거래 시장(arbitrage-free market)이라고 한다. 차익거래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해진다.

1. 같은 자산이 다른 시장에서 같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는다.
2. 똑같은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두 개의 자산이 같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는다.
3. 미래의 가격이 알려진 자산이 미래 가격의 할인가로 거래 되지 않는다. ...중략...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밀가루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면, 상인들이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밀가루를 사서 가격이 높은 지역에 팔아 이익을 남기려하고 따라서 두 지역의 밀가루 값은 같아질 것이다. 이러한 예는 가장 흔한 것으로 거래 비용 및 기타 위험 요소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위키피디아, 「차익거래」, 2010. 11. 21

[다] 한국은행은 올해 두 번째로 정책 이자율 인상을 단행하였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는 동시에 이후 도입될 캐리트레이드(한 국가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다른 국가의 금융상품을 사는 행위; 출제자 주) 규제를 통해 원화안정을 추구하겠다는 한국은행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4.1 퍼센트 상승하여 한국은행의 목표인플레이션을 초과하였으며 9월의 3.6 퍼센트 상승에 비하여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화요일 한국은행은 정책이자율을 0.25 퍼센트 상승한 2.5 퍼센트로 책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이 자본 이동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외국자본의 유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한국은 G20 국가들을 상대로 자본규제가 외화의 급격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때때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한국은 미국의 낮은 이자율과 양적완화 조치가 지역 간 이자율 차이를 이용하는 캐리트레이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Royal Bank of Canada의 신흥시장 전문가인 브라이언 잭슨은 “한국은행의 이자율 상승 조치는 한국은행이 경기상황에 보다 자신감이 생겨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자본유입 통제가 곧 도입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한국정부는 은행 부과세, 외환 파생상품 규제 그리고 논란거리가 될 외국인의 채권이자에 대한 14 퍼센트 과세의 재도입을 고려 중이다. 작년의 채권 이자 세금 폐지는 씨티그룹(Citigroup)이 한국을 일본 연금 펀드와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세계채권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상징적 단계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의 재도입은 세계채권지수에 포함되고 싶은 한국의 포부를 좌절시키고 보다 큰 유동성을 시장에 유입시키는 것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많은 채권 거래인들은 한국정부가 세계채권지수 포함이 원화 강세와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몇 달 사이 원화는 미국달러에 대해 평가 절상되어 왔으며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에 대한 약세는 한국의 주요 수출 경쟁국이 일본이므로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크리스천 올리버, 『파이낸셜 타임스』, 2010. 11. 17

<문제 2: 30%, 500~600자>

[가]와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여기서 찾아낸 논거를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현상을 설명하라.

[가] 모든 사치는 낱아빠지게 되고 유행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도 없는 교훈이다. 그러나 모든 사치는 타고 남은 재에서부터, 그 실패로부터 되살아난다. 사치는 사실 그 어느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사회적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 수준차이는 매번 변동이 있을 때마다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영원한 ‘계급투쟁’이다. 나는 유행의 문제에서는 특권층 사람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그들의 추종자들과 구분되기를 위해서 일종의 장애물을 설치하려는 욕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1714년에 파리를 지나가던 한 시칠리아 인이 말한 것처럼, “귀족들이 입는 황금빛 옷과 똑같은 옷을 가장 미천한 사람이 입고 있는 것만큼 경멸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황금빛 옷’, 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독특한 표시를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해서 남자는 여자를 부르주아의 새로운 옷이 귀족들의 옷과 같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슬퍼하는 것이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추종자나 모방자의 압력은 이 경주를 끊임없이 부추긴다.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화론과 자본주의』

[나] 소비자의 의식도 소유에서 접속으로 서서히 기울 것이다. 값싼 내구재는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되겠지만,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나 집 같은 고가품은 공급자에 의해 소비자에게 단기 대여, 임대, 회원제 같은 다양한 서비스 계약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중략... 접속의 시대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몰고 온다. 바다의 신이자 변화무쌍한 모습을 가졌던 그리스 신화의 프로테우스처럼 새로운 ‘프로테우스’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자 상거래와 사이버 스페이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으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사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중략... 그들이 생각하는 개인적 자유의 의미는 소유권이라든지 남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능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대신 상호 관계의 그물망에 포함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미가 점점 부각될 것이다. ...중략... 요즘 아이들은 재산에 기반을 둔 시장 경제의 특징이었던 내 것과 네 것이라는 전투적 관념이 좀더 상호의존적이며 공존을 지향하는 현실 인식에 자리를 내주는, 네트워크와 연결성의 세계에서 자라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는 경쟁보다는 협조가 중시되고 시스템에 입각한 사고와 합의의 구축이 강조된다.

—제러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다] 사무직원인 A씨는 요즘 얼마 전에 산 캐논의 420만 화소 카메라 익서스 40에 폭 빠져 있다. 틈날 때마다 이런저런 기능을 찾아 짚어가며 카메라의 진가를 찾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 카메라는 곧 A씨의 손을 떠날 것이다.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A씨가 구입한 디지털 카메라는 모두 5대이다. 지난해 초에 니콘 쿨픽스 2500 기종을 샀다가 그해 8월에 인터넷 경매로 20만 원에 팔았다. 한 달 뒤 그는 삼성 케녹스 디지털 V4 모델을 35만 원에 사 얼마간 써보다 인터넷으로 30만 원에 처분했다. 그 다음달에 선택한 것은 코닥의 300만 화소대 카메라 DX6340, 400만 화소대 카메라 DX6440이었다. 이 가운데 DX6340은 역시 그해 12월 인터넷에 매물로 나갔다.

이쯤에서 눈치 챌 수 있지만, 그는 굉장한 아이티(IT) 기기 매니아다. 다만, 모르는 것이 취미인 ‘컬렉터’들과는 달리 그는 맘에 드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미련 없이 이전 제품을 판다.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들을 ‘아이티 매뚜기족’이라고 부른다. 이들의 제품 교체 주기도 빠르면 일주일에서 1~2달 정도로 매우 짧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새 제품이나 현 제품을 가리지 않는다. 최신 제품만을 고집하는 이른바 ‘얼리 어답터’들과는 다르다. ...중략... A씨 같은 이들이 나타난 것은 하루가 다르게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 나오는 디지털 시대 도래와 더불어 자신이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2005. 3. 15

<문제 3: 40%, 1,000~1,200자>

<문제 2>의 제시문 [가]와 아래 제시문 [라]의 공통 화제를 찾아 그 화제에 대한 견해를 각각 요약하고, 취향/선호도에 대한 [마]와 [바]의 견해를 정리한 후, [가] [라] [마] [바]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시문 [사] [아]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한 뒤, 밑줄 친 ①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라] 서로 잘 어울리는 문화적 보완물들은 같은 성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비재의 의미는 재화체계에서의 위치와 문화적 범주 체계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롤렉스 시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롤렉스 시계는 다른 시계 브랜드와의 관계, 롤렉스 시계와 대응되는 인격, 장소, 시간, 경우 등의 문화적 범주에서 의미를 얻는다. 어떤 재화들이 서로 어울리는가를 결정짓는 것은 문화 범주들과 소비재 간의 대응인데, 동일한 문화 범주와 일치하는 제품들은 ‘구조적 등가물’이 되고 이들은 서로 어울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롤렉스 시계와 BMW 자동차는 동일한 문화 범주에 대응하는 구조적 등가물이 될 수 있다. 소비재가 하나씩 떨어져 있거나 이질적인 문화 범주에 속한 사물들과 함께 있으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재화의 의미는 그 재화가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다른 보완물들과 함께 놓여 있을 때 가장 잘 전달된다. 물질문화의 상징적인 속성은 어울려서 의미를 전해야 한다는 점이 물질문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중략...

디드로 효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물들 사이에 문화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힘을 일컫는다. 개인이 가진 물건들은 그 사람의 정서세계를 표출하고, 소유한 사물들을 통하여 그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갈망하는지 인식한다. 또한 사물들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우리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사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디드로 효과는 개인들을 동요시키는 사물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물질세계의 문화적 일관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자아관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명희 외, 『생각하는 소비문화』

[마] 다른 모든 종류의 취향과 마찬가지로 미적 성향은 사람들을 묶어주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한다. 특수한 생활조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미적 성향은 비슷한 생활조건을 공유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묶어 준다. 미적 성향은 동시에 그밖의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구분시켜준다. 취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즉 인간과 사물의 기반이며,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스스로를 구분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분되는데 사용될 원리이다. 취향은 피할 수 없는 차이에 대한 실천적 긍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향이 정당화 되어야 할 때 그것이 순전히 부정적으로, 즉 다른 취향에 대한 강한 거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마 취향의 문제만큼 모든 규정이 부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취향은 무엇보다도 먼저 혐오감,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한 공포감 또는 본능적인 역겨움에 의해 촉발되는 불쾌감이라고 할 수 있다.

—빠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바] 개성의 추구하고 유행에 뒤떨어지고 싶지 않는 마음^①은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일어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다는 심리와 자신은 개성적이라는 심리가 교차하고 있다. 이는 모두 같은 무의식에 바탕을 둔다.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나름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다른 이들과 같기만 하다면 결국 자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면서도 독특한 상품을 원한다. 즉 대중적인 정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품은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

—김현식, 『의외의 선택, 뜻밖의 심리학』

[사] 의상실과 고급 음식 전문점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오르간 음악이 커다란 중앙마당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는 초콜릿, 팝콘, 향수 냄새를 맡았고, 깔개와 모피, 공중에 매달린 살라미 소시지, 그리고 지독한 비닐 냄새도 맡았다. 우리 가족은 이 행사를 한껏 즐겼다. 쇼핑을 하면서 마침내 나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중략... 우리는 이 가게에서 저 가게로 옮겨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는 특정 매장의 물건이나 매장 전체뿐 아니라 쇼핑물 전체와 거대기업에 퇴짜를 놓았다. 아무리 그러고 다녀도 가게들은 또 있었고, 삼층에, 팔층에, 치즈용 강판과 과일칼로 가득찬 지하매장은 또 나타났다. 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맘껏 물건을 사들였다. ...중략... 내 값어치와 자존심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내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차올랐고 나는 나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했으며 존재하는지도 잊고 지냈던 한 인물을 찾아냈다. 밝은 빛이 내 주위에 깃들었다.

—돈 들릴로, 『화이트 노이즈』

[아] 옷가게의 쇼윈도도 들여다보고 리어카의 액세서리도 기웃거렸다. 이 골목에 오 분만 서 있으면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 금세 알 수 있게 된다. 압구정동은 커다란 선물 가게 같다. 이쁜 것도 캡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짱 많다.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애들 중에서 누가 딴 동네 사람인지 우린 그냥 한번 쓱 보면 골라낼 수 있다. 촌빨 날리는 딴 동네 애들과 눈이 마주치면 차갑게 썩까준다. 두 번 다시 안 쳐다보는 것만큼 화끈한 복수는 없을 테니까. 무슨 복수냐고? 음, 똥개도 자기 구역이 있다질 않는가. 찌질하게 입고 남의 동네 넘어와 물 흐리는 것만큼 쾌심한 일이 또 있을까? 미리 맞춘 것도 아닌데 민지도 오늘 나랑 똑같은 재질의 폴로 스웨터와 무릎양말을 신고 있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같이 다니는 친구가 나랑 전혀 다른 스타일로 꾸미고 나오면 쪽팔리기도 하고, 웬지 모르게 맘 한켠이 불안해진다.

—정이현, 「소녀시대」

논 술 고 사 문제지

<사회과학부 / 경영학부>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30%, 500~600자>

제시문 [가]에 나타난 추세를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해 [다] [라] [마]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다음, [나]를 참고해 [다] [라] [마]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가] 베를린 장벽 붕괴를 전후로 전개된 동유럽의 변혁과 소련의 해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서 냉전 체제를 종식시켰고,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게 되었으며, 국가 간 교역이 증대되고 상호 의존도 급속히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자본·노동·정보·기술 등이 주권국가의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화 현상이 촉진되고 있다.

세계화 추세의 원인은 첫째, 기술의 발달로 교통·수송·정보통신 기술 등이 혁명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지구의 공간이 좁혀졌고, 둘째, 이데올로기의 퇴조로 인해 세계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점차 사회주의가 퇴조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는 한편, 대결과 대립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토머스 L. 프리드먼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에서, 세계화가 어떻게 냉전 체제를 대체하는 국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맥도날드 체인점이 있는 국가들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독특한 이론을 제시하여 “세계화란 기회이며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냉전 붕괴 후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가장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사실상 구소련의 와해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시민윤리』, 『정치』, 『윤리와 사상』에서 재구성

[나] 미국은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혼자서 행동해 왔고, 다른 동맹국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명령하고, 동맹국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렇게 하드 파워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은 끊임없이 불화를 만들어 냈으며,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하드 파워(hard power)와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스마트 파워(smart power)가 핵심이 될 것이다.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도 소프트 파워도 아닌, 그 둘의 세련된 조합이다. 스마트 파워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모두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과 통합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은 원하는 결과(outcome)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역사적으로 권력은 인구, 영토, 천연자원,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사회 안정 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하드 파워는 국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휘둘러 줄 수 있도록 해준다.

2008년 회계 기준으로 미국 국방부의 예산은 6,500억 달러 이상이며, 유사한 경쟁국가보다 몇 배 이상 높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최대 경제대국이며, 세계 500대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의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글로벌 파워가 없지만, 미국의 하드 파워가 항상 영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프트 파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외교, 문화, 가치와 이념, 제도 및 체제, 정책 등을 통해 자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정당성은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다. 만약 특정 국가나 사람이 미국의 목표가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미국은 위협이나 뇌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미국의 지휘에 따르도록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다. 또한 정당성은 상황적 요구에 직면해서 하드 파워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저항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이들의 가치관과 선호에 호소하면 당근과 채찍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협력은 항상 정도의 문제이고, 매력(attraction)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리처드 아미티지·조지프 나이, 『스마트 파워』

[다] 중국은 지난 약 30년 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경이적인 발전 속도를 보여주었다. 단적인 예로서, 1980년부터 줄곧 중국은 연평균 두 자리 수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로 발전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외환보유를 기록하는 등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군 현대화의 기치 아래 군사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즉 그간 일본, 미국,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것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안보에 갈수록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에 근거해 서구 국가들 사이에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봉쇄 내지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논리에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미국을 필두로 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이 세계 경제와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터무니없이 중국의 능력을 과장하고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과 상호 갈등의 여지와 관계없이 중국은 머지않아 미국에 견줄만한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련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추세에 근거할 때 대체로 그 시점은 약 2025년 무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평, 『화평굴기론』 외

[라] <신화통신>에 따르면, 2009년 12월까지 전세계 88개 국가에 이미 282개의 공자 아카데미(孔子學院)와 272개의 공자 교실이 세워졌다고 한다. <신화통신>은 공자 아카데미 한 곳당 자본금이 10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중·고등학교 안에 개설된 공자 교실을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공자 아카데미의 자본금만 2,800만 달러에 이른다. 원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를 모델로 삼은 공자 아카데미는 갈수록 중국어 교육 관련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어 학습에 대한 해외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영어의 TOEFL에 해당하는 HSK로 불리는 중국어 인증시험의 응시인원은 지난 수년간 매년 40~50% 정도 증가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외국 학생 수도 10년 내에 3배나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2.4%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란센핑, 『중미전쟁』

[마] 시리아는 중국의 기적을 따를 필요가 있다. 시리아 정권은 특히 중국 같은 빠른 성장속도와 사회 안정을 바란다. 누군들 안 그러겠는가? 대부분의 아랍세계가 같은 것을 원한다. 2007년 10월 퓨 리서치는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팔레스타인의 증산층 52%가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적 안정을 더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아직 가난한 아랍에서 경제적인 안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개혁의 첫걸음은 대부분 도전적이며, 사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사회 불안정에 대한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이라크는 종파 갈등에 휘말려 있으며, 팔레스타인은 내전으로 고통 받고, 레바논도 또다시 전쟁이 시작될까 봐 긴장하고 있다. 중국식 성장모델이 기존의 서구식 성장모델에 경쟁자로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략...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성장은 아랍 국가들에게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따라서 청년 노동인구 증가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하는 아랍 지도자들은 중국을 모델로 삼았다. 심지어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라크조차도 중국을 쫓고 있다.

—벤 심펜도르퍼, 『실�크로드의 부활』

<문제 2: 30%, 500~600자>

아래 [A]~[F]는 중국에 관한 통계자료이다. 이들 통계가 <문제 1>의 [다] [라] [마]에 대해 어떤 사실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함의(含意)를 도출할 수 있는지, 아래 자료를 통해 논술하라.

[A] <국내총생산>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억\$)	20,040	26,920	30,874	36,108	44,022	49,100
GDP증감(%)	9.5	10.4	11.1	11.4	9.0	8.7

[D] <국방예산>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방예산(억\$)	309.95	362.80	415.56	513.79	611.67	703.79
전년대비증감(%)	11.72	15.31	12.5	17.8	17.6	14.9

[B] <소득 구조>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농촌인구 일인당 순소득	477	525	606	697	754
도시인구 일인당 순소득	1,536	1,722	2,018	2,311	2,515
지니계수	0.450	0.496	0.480	0.469	0.470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이 가장 평등한 상태, '1'이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함.

[E] <국가별 부패지수>

순위	국가	지수	순위	국가	지수
1	싱가포르	9.3	39	한국	5.4
6	캐나다	8.9	78	중국	3.5
8	스위스	8.7	110	인도네시아	2.8
17	일본	7.8	134	필리핀	2.4
20	영국	7.6	154	러시아	2.1
22	미국	7.1	178	소말리아	1.1

※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 투명도가 높은 것임.

[C] <세계 총교역에서의 중국의 비중과 순위>

연도	교역순위	교역비중(%)
1990	16	1.7
1995	11	2.9
2000	7	3.6
2004	6	6.2
2005	6	6.9
2006	5	7.4
2007	5	7.9
2008	5	7.9
2009	2	8.9

[F] <집단시위 빈도>

연도	건수	연도	건수
1993	8,700	1998	24,500
1994	10,000	1999	32,500
1995	11,500	2000	40,000
1996	12,500	2002	50,400
1997	15,000	2003	58,000

※ 중국에서 집단시위란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소요사건을 총칭하는 개념임.

<문제 3: 40%, 1,000~1,200자>

[가] [나] [다]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지각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적 틀을 추론하고, 이를 통해 [라] [마]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가] 사람은 주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하여 몸을 움직이거나 몸 안의 상태를 조절하는 반응을 나타낸다. 자극의 종류에는 빛과 열·기계적 충격·화학 물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의 감각 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감각 기관은 특정한 자극만 받아들이는데, 이 자극을 적합 자극이라고 한다. 감각 기관에서 감지된 자극에 대한 정보는 중추 신경계로 전달되어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감각을 느끼게 된다. 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인 정보를 다른 정보와 통합하여 감각 정보를 의미 있게 해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각이라고 한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뇌에서 지각된 정보에 따라 적절히 신체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정보를 운동 기관에 보냄으로써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감각 기관에서 자극에 대한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한다. 감각 기관이 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감각 기관의 역치가 높아져 신호가 잘 발생하지 않아 감각기가 둔해지고, 감각 기관이 자극을 계속 받지 않으면 역치가 낮아져 신호 발생이 잘 이루어지는 예민한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이 자극을 받는 상태에 따라 감각기의 신호 발생이 달라지는 것을 감각의 순응이라고 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생물』

[나] 필러-라이어라는 유명한 착시 현상에서 끝이 안으로 굽은 화살선과 밖으로 뻗어 나간 깃털선은 길이가 동일한데도 전자가 후자보다 짧게 보인다. 이유가 무엇인가? 교과서적인 설명에 따르면 화살선은 시각 체계가 모서리를 관찰자 쪽으로 돌출한 벽으로 해석하며, 깃털선은 모서리를 관찰자로부터 멀어지는 벽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화살선이 깃털선보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두 선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망막의 상의 길이도 같다. 관찰자와 물체의 거리가 변한다고 해서 그 물체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화살선이 깃털선보다 가까이 있는데도 망막의 상의 길이가 같으려면 화살선이 깃털선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시각 체계가 도달한 결론이다. “관찰자와 물체의 거리가 변한다고 해서 그 물체의 크기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 시각 체계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정합적인 최선의 가설을 추론하는 것이다.

—윤보석, 『컴퓨터와 마음』

[다] 당신은 아마 지금 손에 책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책을 움직이거나, 조명이 바뀌거나, 앉은 자세를 바꾸거나, 지면의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기거나 할 때, 당신의 망막에 닿는 빛의 패턴은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 당신이 받는 시각 입력은 매순간 달라지며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사실 당신이 이 책을 백 년 동안 들고 있다고 해도, 당신의 망막에 닿는 패턴, 따라서 당신의 뇌로 들어오는 패턴 중에 똑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책을, 사실 같은 책을 들고 있다는 점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책’을 나타내는 당신 뇌 속의 패턴은 자극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내면 표상을 가리킬 때 불변 표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략... 불변성이 시각만의 것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다른 감각들도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촉감을 생각해보자. 선글라스를 찾기 위해 자동차의 보관함 안을 뒤적거릴 때, 당신은 눈으로 보지 않고서 손가락만으로도 찾았다는 것을 안다. 당신의 손에서 어느 부분이 닿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엄지손가락이나 다른 손가락일 수도 있고, 손바닥일 수도 있다. 그리고 손이 닿은 부분도 선글라스의 렌즈, 안경다리, 경첩, 테두리 등 어디든 될 수 있다. 선글라스의 어느 부분에 손의 어느 부위가 닿든 간에 당신의 뇌는 단 1초면 그것이 선글라스임을 안다. 촉감 수용체들로부터 오는 공간적 및 시간적 패턴들의 흐름은 매번 전혀 다르다. 접하는 피부 부위도 다르고, 선글라스의 부위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당신은 즉시 선글라스를 움켜쥔다.

—제프 호킨스 외,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

[라]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인상이나 감각들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어서, 외부 세계는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방식으로 알려질 뿐이다. 그러나 내성에 따르는 우리의 지식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다. 우리는 어떤 감각을 그 감각에 대한 감각을 통해 내성적으로 파악하거나, 어떤 인상을 그 인상에 대한 인상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상)에 대한 거짓된 인상, 또는 (어떤 감각에 대한) 거짓된 감각에 희생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경우에는 표면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 사이의 차이는 사라지고 만다. 마음은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며, 마음 속의 것은 그것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들어 “내가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 안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다.

—폴 처치랜드, 『물질과 의식』

[마] 당신이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고 뜨거운 인두로 등을 지지하는 고문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가정해 보라. 당신은 잠깐씩 인두로 지지다가 멈추는 고문을 연속해서 19번 당했다. 19번째 고문이 지나 갔고, 잠시 뒤에 이어지는 20번째 고문에서 몰래 얼음 덩어리가 당신의 등을 누르게 되었다고 하자. 이때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은 처음 19번까지의 반응과 거의 다르지 않거나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짧은 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곧 비명 소리는 “잠깐, 잠깐, 이걸 앞서의 느낌과는 달라. 대체 등에 무엇을 댄 거야?”라는 말로 바뀌게 된다. 만약 20번째의 감각이 진짜로 통증이었다면, 왜 수초 후에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게 되는가?

—폴 처치랜드, 『물질과 의식』

논 술 고 사 문제지

<자연과학부 / 공학부>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실수와 유리수를 구분 짓는 핵심은 적합한 극한 이론 구성의 가능성과 관련된 공리이다. 유리수는 수학을 위해 필요한 산술적 성질과 그밖의 많은 중요한 성질들을 갖고 있지만, 유리수만으로는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극한 이론을 위해서는 적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sqrt{2}$ 를 소수 n 째 자리까지 나타낸 항들로 이루어진 유리수의 수열 $1.4, 1.41, 1.414, 1.4142, \dots$ 는 명백히 $\sqrt{2}$ 로 수렴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해당 수열의 극한값 $\sqrt{2}$ 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극한 이론에서 출발한 미적분학이 수학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완비성을 갖춘 실수의 구성이 필요하였다. 프랑스의 수학자 코시(Cauchy)는 유리수에서 출발하여 유리수 수직선에 새로운 점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수의 집합을 구성했고,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완비성을 갖춘 실수의 집합을 구성하는 방법은 이후에 독일 수학자 데데킨트(Dedekind)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실수의 완비성을 공리로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방법들은 각각 서로 동치이다. 그 중 하나는 위로 유계인 단조증가 수열이 반드시 실수값의 극한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무한수열 $\{a_n\}$ 과 어떤 양수 M 이 있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 \leq a_{n+1}$ 이고 $a_n < M$ 이면, 수열 $\{a_n\}$ 은 적당한 실수 α 에 수렴한다;** 즉 $\lim_{n \rightarrow \infty} a_n = \alpha$ 이다. 위에서 언급한 실수의 성질을 수학자들이 공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까지도 모두 실수에 속하게 된다.

단조증가 수열의 대표적인 예는 음이 아닌 항들로 구성된 급수의 부분합 수열이다. 무한수열 $\{a_n\}$ 의 각 항을 모두 더한 식을 무한급수 또는 간단히 급수라 하고 $\sum_{k=1}^{\infty} a_k$ 로 나타낸다. 이 급수에서 첫째항부터 n 항까지의 합 $s_n = \sum_{k=1}^n a_k$ 를 급수의 제 n 부분합 또는 간단히 부분합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의된 부분합의 수열 $\{s_n\}$ 이 s 에 수렴할 때, 급수 $\sum_{k=1}^{\infty} a_k$ 는 s 에 수렴한다고 정의하고 $\sum_{k=1}^{\infty} a_k = s$ 라 표기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급수 $\sum_{k=1}^{\infty} a_k$ 가 수렴하는 경우 $\lim_{n \rightarrow \infty} a_n = 0$ 이다.① 또한 두 수열 $\{a_n\}, \{b_n\}$ 이 각각 α 와 β 에 수렴할 때, 임의의 실수 p, q 에 대해 수열 $\{pa_n + qb_n\}$ 은 $p\alpha + q\beta$ 에 수렴한다는 것으로부터, 두 급수 $\sum_{k=1}^{\infty} a_k, \sum_{k=1}^{\infty} b_k$ 가 각각 s 와 t 에 수렴하는 경우 임의의 실수 p, q 에 대하여, 급수 $\sum_{k=1}^{\infty} (pa_k + qb_k)$ 는 $ps + qt$ 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실수의 완비성을 무한급수에 적용하면, 모든 n 에 대하여 $0 \leq b_n \leq c_n$ 이고 급수 $\sum_{k=1}^{\infty} c_k$ 가 수렴하는 경우, 급수 $\sum_{k=1}^{\infty} b_k$ 도 수렴하게 된다.② 마찬가지로 수열 $\{b_n\}$ 의 각 항이 음수가 아닐 때, 모든 n 에 대하여 $\sum_{k=1}^n b_k \leq a_n$ 을 만족하고 수열 $\{a_n\}$ 이 수렴하면, 급수 $\sum_{k=1}^{\infty} b_k$ 도 적당한 실수에 수렴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a_n = \int_2^n \frac{1}{x(\ln x)^2} dx$ 을 이용해서 무한급수 $\sum_{k=2}^{\infty} \frac{1}{k(\ln k)^2}$ 이 수렴함을 보일 수 있다.③ 이는 해당 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극한값을 구체적으로 찾지 않고서도 실수의 완비성으로부터 급수가 어떤 실수값에 수렴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밑줄 친 ①을 증명하라.

【1-2】 실수의 수열 $\{a_n\}$ 에서 무한급수 $\sum_{k=1}^{\infty} |a_k|$ 가 수렴하면, $\sum_{k=1}^{\infty} a_k$ 도 수렴함을 증명하라.
(밑줄 친 ②와 $0 \leq |a_k| - a_k \leq 2|a_k|$ 임을 이용할 것)

【1-3】 밑줄 친 ③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1-4】 두 급수 $\sum_{k=1}^{\infty} (2a_k + 3b_k)$ 과 $\sum_{k=1}^{\infty} (a_k - 2b_k)$ 가 모두 수렴할 때, 두 수열 $\{a_n\}, \{b_n\}$ 은 모두 수렴하는가?

<문제 2: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와 $g(x)$ 가 있을 때, 곱의 미분법에 의하면 $f(x)g(x)$ 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frac{d}{dx}[f(x)g(x)] = f(x)g'(x) + f'(x)g(x)$$

부정적분의 기호를 사용해서 위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nt [f(x)g'(x) + f'(x)g(x)]dx = f(x)g(x) \quad \text{또는} \quad \int f(x)g'(x)dx + \int f'(x)g(x)dx = f(x)g(x)$$

위 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식을 얻는다.

$$\int f(x)g'(x)dx = f(x)g(x) - \int f'(x)g(x)dx$$

이 식을 사용하는 적분법을 부분적분법이라 부른다. 또한 위 식에서 $u = f(x)$ 그리고 $v = g(x)$ 라 놓으면 $du = f'(x)dx$ 이고 $dv = g'(x)dx$ 이므로, 다음의 간편한 식을 얻게 된다.

$$\int u dv = uv - \int v du$$

부분적분법은 많은 경우 피적분함수가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곱의 적분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분법을 사용하여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다. $\int x \sin x dx$ 를 예로 살펴보자. $f(x) = x$ 그리고 $g'(x) = \sin x$ 로 놓으면

$f'(x) = 1, g(x) = -\cos x$ 이므로 부분적분법에 의하여 아래의 식을 얻을 수 있다.

$$\int x \sin x dx = x(-\cos x) - \int (-\cos x) dx = -x \cos x + \int \cos x dx = -x \cos x + \sin x + C$$

한편 $f(x) = \sin x$ 그리고 $g'(x) = x$ 로 놓고 부분적분법을 사용하면 $f'(x) = \cos x$ 이고 $g(x) = x^2/2$ 이므로

$$\int x \sin x dx = \frac{x^2}{2} \sin x - \frac{1}{2} \int x^2 \cos x dx$$

를 얻게 되고, 이 식은 부정적분 $\int x \sin x dx$ 을 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분적분법을 사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것을 $f(x)$, 어느 것을 $g'(x)$ 로 놓아야 할 것인가를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적분함수가 x^n 과 $\sin x$ (또는 $\cos x$, 또는 e^x)의 곱일 때에는 $f(x) = x^n$ 그리고 $g(x) = \sin x$ (또는 $g(x) = \cos x$ 또는 $g(x) = e^x$)라 놓고 부분적분법을 반복 사용한다.

이제 부정적분 $\int x \sin(x^2) dx$ 을 살펴보자. 피적분함수 $x \sin(x^2)$ 은 x 와 $\sin(x^2)$ 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부분적분법으로는 $\int x \sin(x^2) dx$ 을 구할 수 없다. 반면에 $u = x^2$ 으로 치환하면 $du = 2x dx$ 즉 $x dx = \frac{1}{2} du$ 가 되므로

$$\int x \sin(x^2) dx = \frac{1}{2} \int \sin u du = -\frac{1}{2} \cos u + C = -\frac{1}{2} \cos(x^2) + C$$

를 얻을 수 있다. 부분적분법을 정적분에 적용하면 다음 식을 얻는다.

$$\int_a^b f(x) g'(x) dx = [f(x) g(x)]_a^b - \int_a^b f'(x) g(x) dx$$

【2-1】 함수 $f(x)$ 가 연속인 2계 도함수를 갖고, $f(1) = f(2) = 5$ 이고 $f'(1) = 3, f'(2) = 2$ 일 때,

$$\int_1^2 x f''(x) dx \text{의 값을 구하라.}$$

【2-2】 n 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int \sin^n x dx = -\frac{1}{n} \sin^{n-1} x \cos x + \frac{n-1}{n} \int \sin^{n-2} x dx$ 임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int_{\pi/2}^{\pi} \sin^{2n} x dx$ 의 값을 구하라.

【2-3】 $a_n = \int_{\pi/2}^{\pi} \sin^n x dx$ 이라 놓을 때 $\lim_{n \rightarrow \infty} \frac{a_{2n}}{a_{2n+1}} = 1$ 이 성립함을 설명하라.

【2-4】 $f(x) = \frac{1}{\sqrt{2\pi}} e^{-x^2/2}$ 가 표준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임을 이용하여, k 가 자연수일 때 $\lim_{t \rightarrow \infty} \int_0^t x^{2k} e^{-x^2/2} dx = \frac{(2k)!}{k! 2^{k+1}} \sqrt{2\pi}$ 임을 증명하라. (단, 임의의 자연수 n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infty} \frac{x^n}{e^x} = 0$ 이다.)

<문제 3: 30%, 800~1,000자>

제시문 [가]와 [나]에는 특허에 대한 입장들이 반영되어 있다. 각 입장의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어느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고자 할 때 [다]와 [라]의 논거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경우를 고려하여 논술하라.

【가】 거의 30년 동안 생명과학 기업들은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뿐 아니라, 유전자, 유전자 배열, 진기한 혼성 이종 유기체, 복제 유기체 등에 대해 특허를 냈다. 그러나 최근에 인터넷 세대에 속하는 젊은 학자들은 지식을 독점하려는 기존의 경직된 사고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지식을 대가 없이 공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의학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을 증진시키고, 대체 청정 에너지를 찾아내고, 지속 가능한 건축 자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제러미 리프킨, 『공감의 시대』

[나] 과학자들은 인간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밝혀지면 여러 가지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생명 탄생의 비밀도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국제 공동 연구로 인간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밝히는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0년 6월 26일 게놈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미국 국립 인간 유전체 연구소가 제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기초 자료를 공개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국제 공동 연구와는 별도로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 민간 연구소에서는 자신들이 거액을 투자해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타적인 특허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연구라도 이처럼 거액을 투자하여 연구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과학』

[다] 나는 이제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원리들 중의 하나인 공정성의 원리에 눈을 돌리고자 한다. 나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적 의무와 구별되는 책무라고 할 모든 요구 조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원리가 표방하는 것은 다음의 두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모든 사람은 제도의 규칙들이 정하는 각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그 조건이란 첫째로 제도는 정의로우며 (혹은 공정하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며, 둘째로 사람들은 그 체제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것이 제시하는 기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동체에 가담하고 따라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이러한 제한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것에 따름으로써 이익을 보는 다른 사람들 편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에 따를 것을 주장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는 타인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정의의 두 원리는 기본 구조에 속하는 제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 정당한 몫인가를 규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정의로운 것이라면, 모두가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각자는 정당한 몫을 받게 된다.

—존 롤즈, 『사회정의론』

[라]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자동차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수많은 부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시각도 이와 유사하다. 기계나 생물 유기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각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사회 구조도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가족, 학교, 정부, 종교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을 위해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써 모든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지속할 수 있다.

갈등론적 관점은 사회를 부, 권력, 명예와 같은 사회적 희소 자원을 보다 많이 가지려는 구성원들 간의 경쟁의 장으로 파악한다. 각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해야 하는 일과 그 방식은 누군가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며, 강제와 억압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각 구성 요소들은 항상 서로 대립적이고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한다. 갈등론적 관점은 이러한 사회의 동태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강제와 억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에 주목한다. 사회 질서는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이 상대를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는 과정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사회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을 통해 사회의 변동이 초래된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